

아시아 종교인 한반도서 '평화' 를 논하다

ACRP, 8월 25~29일 인천 송도 일원서 8차 총회

'조화 속 하나되는 아시아' 주제... 여성대회도 열려

35개국 450명의 아시아종교인들이 참석하는 제8차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Asi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이하 ACRP)가 인천 송도에서 8월 25~29일 동안 열렸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1986년 제3차 총회이후 28년 만이다. ACRP 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며 전 총회인 7차 대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ACRP 한국지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대표회장 지승 스님은 8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8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총회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CRP는 1976년 탁남한 스님, 마더 테레사 수녀 등 아시아 종교지도자들의 발의로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창립된 종교간 국제협력기구다. 한국, 북한, 네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18개 회원이 있다.

'조화속 하나되는 아시아(Unity and Harmony In Asia)'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평화교육과 화해', '인권과 행복', '개발과 환경위원회' 등 세 분과로 이뤄진다. 총회기간동안 분과별 회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주제로도 종교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펼친다.

사전대회도 열렸는데 8월 23~25일부터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국내청년 40명, 해외청년 45명이 참석하는 종교청년 평화캠프가, 25일

역대 ACRP 총회 주제 및 개최지

1회 종교를 통한 평화 (Peace Through Religion), 싱가포르(1976)
2회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종교 (Religion in Action for Peace), 인도 뉴델리(1981)
3회 아시아 평화의 가교 (Bridge of Peace in Asia), 한국 서울(1986)
4회 21세기를 향한 아시아의 종교 (Asian Religions Toward The 21st Century), 네덜 카트만두(1991)
5회 아시아의 이웃 (Our Asian Neighborhood), 태국 아이우타이(1996)
6회 조정자로서의 아시아 (Asia the Reconciler), 인도 조즈카르타(2002)
7회 아시아에서의 화해 (Peacemaking in Asia), 필리핀 마닐라(2008)

1986년 이후 28년만에 한국 개최

종교인 5백명 집결해 협력 논의

전경 정식 선언문 채택 계획도

에는 국내의 여성 160여명이 참가한 여성 대회가 개최됐다.

ACRP 측은 이번 대회 후 한반도 평화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을 호소하는 선언문을 채택, 종교인들이 사회적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평화교육센터 건립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평화교육센터는 1986년 대회 때부터 추진돼왔으나 재정부족으로 상설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 센터가 건립되면 정소년을 대상으로 남북간, 아시아 국가간 갈등을 치유하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승 스님은 "단독개최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ACRP를 통한 남북종교 교류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총회가 아시아종교지도자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 세계평화를 위한 기초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총회 현장 차주 상세보도)

방재부품 보증기한 방재라인 재점검 필요

긴급 점검- 불교문화재가 위험하다

- ① 문화재 특별 점검을 통해 본 성보관리 실태
- ② 흔들리는 불교 건축문화재 보존 대책은
- ③ 아직도 부실 위험, 예방적 보존 '방재'

국보·보물급 불교목조문화재에 설치된 불꽃감지기와 방수층 등이 작동하지 않고 경보조차 울리지 않는 등 화재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불방재라인의 잘못된 설정으로 일부 사찰은 화재 발생 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이 8월 7일 발표한 문화재 종합점검 결과 소방·방재시설의 작동 미흡으로 보완 개선이 시급한 불교문화재가 25%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의 점검에서는 전통사찰방재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시행된 사찰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교문화재의 경우 총 95건이 조사됐는데 이중 24건이 C등급을 지적받았다. 국보 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의 경우 방수펌프가 기동하지 않으며 불꽃감지기도 불량체 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물인 여주 신륵사 조사당의 경우 방수층이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 압력에 미달해 화재 대응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수가 없는 사찰도 있었다. 보물162호 대웅전과 181호 하 대웅전이 있는 청양 장곡사의 경우 수원 확보가 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5월 감사원의 목조문화재 소방 실태 점검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34개 목조문화재의 소방시설을 표본 점검한 결과 작동하지 않는 소방시설을 그대로 방치된 사찰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부 사찰의 경우 부품 보증기한을 넘겨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주기적 점검을 통해 부품을 교체해줘야 한다.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불교계도 방재시설 전환을 통해 통합관리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찰방재시스템의 기기적인 불량과 함께 방재라인도 부실하다는데 있다. 정비되지 않은 방재라인은 화재피해를 더욱 부추긴다. 우리나라에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피해는 기후 온난화 등으로

소방방재 C등급을 받은 국보·보물급 불교문화재

경진 무위사 극락보전	불꽃감지기, CCTV불량
예산 수덕사 대웅전	CCTV불량
영암 도갑사 해탈문	CCTV불량
보은 법주사 팔상전	엔진펌프 감지기 불량
청년 관음사 약사전	CCTV불량
강화 정수사 법당	소화전 불량
여주 신륵사 조사당	방수층 불량
청년 관음사 대웅전	CCTV불량
순천 송광사 하사당	CCTV불량
부여 개암사 대웅전	CCTV불량
부여 무량사 극락전	CCTV불량
여주 홍곡사 대웅전	소화기 점검표 미비 및 소화설비 작동 미흡
논산 쌍계사 대웅전	옥외소화전 불량
경산 환성사 대웅전	CCTV불량
영진 은해사 극락전	연기감지기 불량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엔진펌프 불량, CCTV불량
안성 석남사 영산전	불꽃감지기 불량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엔진펌프 불량
영광 불갑사 대웅전	CCTV불량
영주 성철사 나한전	CCTV불량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CCTV불량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엔진펌프 시동불량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엔진펌프 시동불량
문경 봉암사 극락전	CCTV불량

문화재청 특별 점검서 불교문화재 24건 'C' 화재·회개미 문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2007~2009년 280건 중 126건에서 회개미 피해(45%)가 발생했으며, 2011~2013년에는 193건 중 108건에서 회개미 피해(56%)가 발생했다.

문화재청의 이번 조사에서는 국보급에서는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전과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강화 전등사 대웅전 등 국보 보물급 불교 목조문화재 12곳에서 회개미 피해가 보고됐다.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 보존과학과 교수는 "사찰 방재라인이 엉망인 곳이 많은데 방재라인이 완벽히 구축되지 못하면 산불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회개미가 사찰로 들어오는 길목 역할을 한다"며 방재라인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제는 '도박 중독'도 템플스테이로 치유

문화사업단, 관련 매뉴얼 내보

한국사회에서 도박 중독으로 시름하는 사람은 약 59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 매우 드물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이하 문화사업단)이 '도박 중독'을 템플스테이로 치유하기 위한 <도박중독자 치유를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했다.

문화사업단이 정신분석클리닉 '닛부터 숲'에 의뢰해 내놓은 이번 매뉴얼은 도박 중독자를 위한 집단 치유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상은 도박 중독자 본인과 가족이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아직 도박 중독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사찰은 없지만 향후 필요성이 제기돼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며 "이번 매뉴얼은 도박뿐만 아니라 일반적 '중독'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 의뢰해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로 보는 자본주의 문제점과 대안

불교평론, 8월 29일 창간 15주년 맞이 심포지엄

불교평론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불교의 시각으로 자본주의 사상을 고찰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불교전문계간지 불교평론은 8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의 눈으로 자본주의를 말한다'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불교의 자본주의에 대한 시각을 비롯해 불교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시각과 대안공동체 사상과 불교공동체 운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불교의

접합점이 모색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최갑수 서울대 교수의 '왜 자본주의를 말해야 하는가'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김광수 한양대 교수의 '불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는가'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불교'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불교와 자본주의의 합심주의적 만남' △민경국 강원대 교수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능한가' △이도훈 한양대 교수의 '자본주의 체제의 비판과 대안의 모색' △유정길 예코넷대 대표의 '불교의 소비

와 불교공동체 운동의 가능성' 이 발표된다.

사회는 이혜숙 금강대 객원교수와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맡으며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불교평론 관계자는 "자본주의는 근대화 이후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운영원리로 작동해 왔다. 이제는 자본주의와 불교는 어떤 관계로 설명될 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2014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열리는 '불교평론' 창간 15주년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의 눈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관광·역사를 통한 포교활동 펼쳐야"

조계종 포교원 8월 22일 제주지역 전법네트워크 발대식 열려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법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제주지역 불자를 조직·활성화하기 위한 제주지역 전법네트워크 추진단 발대식 및 연합대법회를 가졌다.

포교원은 8월 22일 제주 보현사 내 제주불교문화대학 교육관에서 '제주지역 전법 실현을 위한 교구와 사찰역할'을 주제로 찾아가는 중핵 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에서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이 '지역전법네트워크 구축과 제주지역 포교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기초 발제를

말았으며, 관통사 주지 석연 스님이 '제주지역 포교역량 결집을 위한 포교·신도단체'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이 '제주지역에서의 승가연수 교육과정'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법상 스님은 "지금 제주 도심지역은 기독교 세력에 점점 잠식당하고 있다. 제주 농어촌지역은 불교가 우세하지만 도심지역은 어린이·청소년 및 청년 계층들이 점점 세를 불려나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심지역 어린이집이나 불교유치원, 사찰에서의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무료 영어·음악 교육 등 불교 학생회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관광포교와

제주의 역사적 특색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포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포 등 관광코스를 활용한 바닷길 행선 등 공간의 장점을 활용한 포교방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초고령사회가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한 실버포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교원은 이어 제주 한라대 스토니브룩 강당에서 제주지역 전법네트워크 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추진단 위원장은 제주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이, 증명 및 고문은 향운 스님(제주 천용사 주지)과 종호 스님(제주 관음사 회주)이 맡았으며 지오·진우·해전 스님이 수석 부위원장직을 맡는다. 또한 총무·기획·재무·문화·사회 등 각 분과별로 스님을 위원으로 모시고 윤도호 재가 불자 단장을 비롯한 불파별 부단장이 활동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오래래부처님 화현도량

신비의 돌부처님

부산자비선원

"어째서 이런 일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신비의 가피체험

누구나 오셔서 소원을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오래래 부처님이 들려주지 않으면 소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학봉당 진성스님의 40여년 수행결과가 부처님의 가피로 환희롭게 열립니다.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오래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오래래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진성 큰스님께서 새벽예불 끝나고 참선 중 출연해 나타나신 큰 스님이 주정자를 쥐신 채 보자 기를 스님한테 내밀면서 "이것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데 써라"고 말씀하셨다. 진성 큰스님이 커다란 보기를 받아두고 안을 들여다보는데 순간 지루해 들은 돌이 갑자기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 청도 운문사를 가던 중 계곡 입구에서 아주 볼품없는 못생기고 단단한 돌을 발견하였는데, 이상한 기운이 들어 차에 싣고 와서 황동석 재공장에 맡겼다. 그렇게 해서 10kg정도 되는 돌근 돌이 다들 어저 왔다. 그 돌을 신중단에 놓고 다짐을 올리기를 위해 옮기려 하자 움직이지 않았다. 돌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금히 큰스님을 찾아 저조지정을 맡음드려 큰스님 역시 물러고 하자 골짜기를 찾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고 물리시며 경건과 각종 문헌을 찾아 보시더니 이 돌은 묘색신아래부처님이 화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큰스님께서는 묘색신아래부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응답을 주고 받으셨다. 그리고 석재공장에 전화를 하시어 똑같은 돌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석정이 "큰스님, 왜 돌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하고 물었다. "원래 이 돌은 묘색신아래부처님 한 문만 오신 게 아니라 다섯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첫째 다보아래부처님, 둘째 묘색신아래부처님, 셋째 광복신아래부처님, 넷째 이포아래부처님, 다섯째 김로아래부처님이다." 하시며 "이 모두를 오래래부처님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 다보아래부처님 : 사법고시, 행정고시, 임시준비, 고시 응시생, 재판 중 사정
- 묘색신아래부처님 : 취업, 승진, 특근발령, 결혼인연
- 광복신아래부처님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사업발전
- 이포아래부처님 : 암·불치병·우울증·빙의 등 병고해탈
- 김로아래부처님 : 건설·제조·사회복지 등 사업번창

오래래부처님 화현도량
부산자비선원

문의 및 접수(단체예약도 받습니다.)
Tel : (051) 633-8445~7
Fax : (051) 634-8446
http://cafe.naver.com/jbsw8445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정고개로 93번길 41(문현동)
문현동 배전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개방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